

오페라부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곽금주

오산대학 유아교육과

김인경 양진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중음악에 심취한 오페라부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연구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연령별로 초기·후기로, 집단별로 심취집단,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들에게 공연장에서 하는 열광적인 반응에 대한 문항과 자아중심성,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기위한 자기상 척도, 정신건강 척도, 자기존중감, 자기가치감 척도를 실시하여 각 하위영역에서 연령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심취집단과 일반집단은 공연장에서 보이는 열광적인 반응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 반응에 가장 설명력있는 변인은 자기중심성, 자기상 영역 순이었다. 자기상의 하위영역 중 신체상, 정서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에서는 강박성,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정신증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척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일반집단에 비해 심취집단이 더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고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대중음악이란 청소년 시기에 가지게 되는 억압의 분출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제언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어 : 오페라부대 · 청소년 · 심리적 특성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아동기에 비해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학생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 스타에 집착하는 청소년의 물개성화된 행동은 때때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까지 한다. 최근 들어 연

예계 스타나 스포츠 스타를 향해 열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연예계 스타나 스포츠 스타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군집을 형성하여 환

-
- 1) 본 연구는 1996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대중음악에 심취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연구의 일부이다.

호하며 찬사를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대중음악이나 스타에 열광하는 현상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것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청소년기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경계인으로서 발달 단계적 위치에서 겪어야 하는 좌절과 갈등 그리고 방향의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과 진학 및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도 청소년을 평가하는 비중 있는 잣대로 지적 성취를 꼽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인격을 가진 고유한 개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거의 대학입학 이후로 미루어 놓은 채, 모든 육체적 정신적 윤희와 기쁨을 억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된 장소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나타난 현상중 하나가 대중적 우상에 대한 열광적 행동일 것이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자신들과 유사한 청소년들과 묵히고 억눌렀던 감정과 신체적 에너지를 분출하고자 한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한껏 소리지르고 환호하면서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여 원시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압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들은 이런 집단적 동조행동으로 해결하거나, 소비 문화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황폐한 문화적 환경 속

에서 사춘기의 방황기에 들어선 이들은 유명 상표로 치장하기, 오빠부대와 대중 소비 문화(노래방, 호프집, 록 카페와 나이트, 자신만의 오디오와 전화, 삐삐 등) 즐기기 등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고 이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풀며 정체성을 확인한다(조혜정, 1997).

이들은 고도의 갈등과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상 또는 백일몽을 통해 비현실적 세계의 상상 속에서 긴장과 갈등상태를 해소하기도 한다. 특히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는 비현실 세계, 상상의 세계에서 마음껏 충족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적도 좋지 않고 인정받을 것도 없는 경우에는 1등하는 상상 또는 대치적 활동을 통해 환호와 인정을 받는 환상(자신이 무대의 스타가 되거나, 만인의 연인이 되는 혹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기리는 타인의 애도장면 등을 상상하기) 속에서 자위하는 경우이다.

대중음악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음악의 실현자와 내용은 이를 수용하는 청소년에게 정체확립을 위한 동일시 대상이 됨은 물론 수용자들에게 가치와 규범은 물론 새로운 유행과 생활방식 그리고 특정가치 체계를 은연중에 주입시키고 전파한다.

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서 또래집단을 동일시하거나(Roe, 1990), 비건설적인 저항의 상징을 제공(Strasburger, 1990) 받기도 하고 대중가수는 잠재된 역할모델로써 청소년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청소년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광고의 주 타겟이 된다(Firth, 1992). 대중음악의 장르에서 보면 록음악의 반건설

적 속성은 청소년의 정체감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음악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며, 또래관계나 로맨틱한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부모와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음악에서 배우기도 한다(Lull, 1987). 음악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세상을 양분(우리와 너희로)하여 배타적인 이분법으로 사고하도록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Grossberg, 1992). 장기 연구에 따르면 록음악 청취 연령이 어릴수록(11세) 부모보다는 또래에 영향받기 쉽다고 한다(Roe, 1984).

대부분의 음악은 그 음악 내에 특정한 가치를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데(Christenson & Roberts, 1990), 특히 록음악의 가사는 기성세대에 대립되는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저항적이고 반건설적이며 기성인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Marsh, 1993; Moran, 1985). 그러나 록음악은 청소년들의 정체에 중요한 가교이자 그들의 주요한 활동의 일부(Felder, Hall & Tanzi, 1982; Hendren & Straburger, 1993)이기도 하다. 그리고 몇몇 연구를 보면 음악은 숙제를 하거나, 운전할 때, 그리고 친구와 만날 때 곁들여서 배경음악으로 청취하고 있는데(Christenson & Roberts, 1990), 음악을 많이 듣는 십대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았고 록음악을 듣는 학생이 고전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공부하는 경우보다 교재 이해도가 낮았다(Burke & Grinder, 1966; Larson & Kubey, 1983). 또한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소수만이 노래가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Leming, 1987). 청취하는 음악의 종류

내지 청취시기와 생활적용 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발달과업 중의 하나가 자아정체감 확립이다. 아동도 성인도 아닌 그 경계인으로써의 특징 때문에 많은 양가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및 역할규정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자신에 대한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대처하기 위한 물음들은 자신의 능력 및 성취나 여건 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념 등과 연관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물음을 수없이 던지고 대답하며 정체확립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시도하며, 고민과 방황으로 어려운 심리적 갈등기를 보낸다. 지금까지의 성취와 자신의 출신, 신분, 능력 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놓고 심각한 사색을 하게 되나,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체계로서 간직해 온 이전의 동일시 대상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여 이들의 고민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는 가족에서 벗어나 친구집단에 참여하는 또래 동조 현상이 현저하게 늘어나며, 일련의 반항과 저항적 행동은 복종이나 동조행동도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럴 때 눈앞에 마음에 드는 동일시의 대상이 있으면, 고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런 행동적 결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 집단의 사회적 기율과 전략 그리고 규범을 추종하고 배우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들의 열정을 쏟아 부을 대상을 찾고 만들어서 그런 우상에 대해 열광하

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런 대상을 자신의 동일시의 모델을 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마음속에 우상이나 동일시 대상을 정해서, 닮고 싶은 대상의 심리적 속성, 태도, 가치관 등을 스스로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여 정체감을 형성한다. 청소년들이 스타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대중스타들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여 그 결과 인기와 명예를 성취한 역할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대중적 우상에 열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이 시기의 자아적용과정(Blos, 196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며 성숙된 자아의 적응체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적응과정을 통해 부모에 대한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 발달을 이차 개별화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으로 설명하고 있는 Blos는 이러한 청소년기 자아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이탈해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청소년들의 우상숭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째 단계는 잠재기(latency)로써 Freud의 설명대로 리비도의 충동이 약한 반면, 자아가 강력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사춘기의 증가된 성적 충동으로 인한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다. 두번째 단계는 청소년전기(preadolescence)로서 증가된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가 산만하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표출되어, 청소년들은 성적 자극에 대한 놀라움, 두려움, 흥분, 관

심 등으로 산만해진 감정을 드러내며, 전 반적으로 안전감이 없고 우울하며 공격적이고, 부모들의 통제를 거부하고 청소년기 비행을 보이기도 한다. 세번째 단계인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의 자아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 친구, 운동선수, TV스타 등 매력적인 인물에 열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성에 대한 성적 요구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독특한 자아의 적응적 특징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단계 청소년들의 행동에서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우상 숭배 현상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번째 단계는 청소년 중기(adolescence proper 또는 middle adolescence)로서 성적 혼돈과 갈등을 심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나,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울하며, 지속되는 혼돈과 위기 속에서 이를 통합하려는 자아의 기능 또한 강화시킨다. 다섯번째 단계인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에 이르면 이전까지의 성적 혼돈과 갈등을 극복하고 강해진 자아를 엿보인다. 따라서 이전까지 지속되던 내적 위기와 갈등은 사라지며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 생기며, 자아는 성취되기 힘든 완벽한 목표를 지향하는 내적 자아 이상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외재적 자아 이상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청소년 후기(post adolescence)는 청소년기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매우 안정된 자아가 형성되며, 외

부로부터 실패와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방어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통합해갈 수 있는 성숙한 대처능력과 적응체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며 자아존중감이 길러진다 (김인경·곽금주, 1997).

청소년기의 집단 정체감 형성의 결과로 나타난 우상숭배 행위는 청년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개인적 정체감과 심리적 자율성이 확립되고, 개인적 가치와 인생관이 형성되면서 사라진다.

또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중음악 스타는 청소년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이 보이는 여러 외관적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다든지 그들의 의상, 액세서리 등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의 옷차림과 외양을 꾸미는 유행(서태지 바지, HOT신발과 모자 장갑 등)에 있어 대중스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또 연예인에 대한 직업 선호와 최근 백댄서라는 직업 춤꾼이 10대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인경·곽금주, 1997)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Madonna의 "Papa don't preach"라는 노래는 어린 소녀의 임신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Goodman, 1986). 대중스타에 열광적으로 심취하는 현상은 청소년기 이성애의 발달과정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대중스타를 통해 대리 체험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청소년기의 특성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은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청소년기이다.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또 이로 인해 충동성, 우울과 같은 기분(mood)변화의 기록이 커지게 되고 사회적 관계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학교상황에서의 변화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에 따른 학교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학과목이 여러개로 증가하게 되고, 또 과목별로 여러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의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대한 반응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자율성에 대한 증가된 요구를 촉진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는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감소되지 않더라도 동료들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좀 더 구조화된다 (이춘재·곽금주, 1994).

대중음악은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에 심취하면서 부모나 친구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이를 매개로 강력한 동료관계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헤비메탈과 랩과 같은 대중음악에서 성적이고 폭력적인 가사가 늘어나는 것이 십대 임신, 성폭행, 약물 중독, 우울증과 자살 등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건강문제가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울, 행동장애와 같은 역기능적인 심리·사회적 행동으로 입원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부정적인 가사나 주제가 담긴 대중음악을 훨씬 더 즐겨 듣고 있었다(Brown & Walsh, 1994). 따라서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것과 정신건강적 문제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대중적 우상에 대한 열광을 대리만족을 통한 환상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고의 수준에 오른 스타의 모습을 자신으로 상상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의 좌절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도피로 인한 대리만족은 "상상의 청중" 개념으로 설명된다. 상상의 청중이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자아중심성의 한 구인으로서 대상관계 생각이나 대인관계적 환상으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백일몽에 해당한다. 대중음악에 심취하거나 대중스타에 몰입하거나 열광하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백일몽이나 상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특성들이 대중음악에 심취한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중음악에 대한 심취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자아중

심성,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측정하는 자기상, 여러 가지 영역의 정신건강, 자기존중감, 자기가치감 척도를 사용하여 대중음악에 심취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탐색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한 사회·문화현상인 일명 오빠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일반집단

서울 시내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 160명 중에서, 팬클럽 활동이나 열성적으로 공연장을 쫓아다니는 경험에 있는 학생들은 제외한 142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은 중학생(63명)과 인문계열 고등학생(7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4세였다. 경제수준은 가정의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7.0%), 월수입 200만원 정도(48.7%), 월수입 300만원 정도(30.4%), 월수입 400만원 정도(12.2%), 월수입 500만원 이상(1.7%)이었다.

심취집단

대중음악에 심취한 집단(일명 '오빠부대' 집단)은 연예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공연장을 쫓아다니면서 팬 클럽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방송국과 공연장에서 표집하였다. 이들은 중학생(70명), 인문계열고등학생(45명), 실업계고등학생(2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연령은 15.4세였다. 이들의 경제수준은 가정 월

수입이 100만 정도(5.8%), 월수입 200만원 정도(46.7%), 월수입 300만원 정도(30.8%), 월수입 400만원 정도(15.0%), 월수입 500만원 이상(1.7%)이었다. 일반집단과 심취집단 간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집단을 다시 연령별로 중학생은 청소년 초기로, 고등학생은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대상자분포가 표1에 있다.

표 1. 연령과 집단 간 인원수

연 령	집 단		전 체
	일반집단	심취집단	
초기청소년	63(22.5)	70(25.0)	133(47.5)
후기청소년	79(28.2)	68(24.3)	147(52.5)
전 체	142(50.7)	138(49.3)	280(100.0)

()안은 %

2. 조사도구

심취 및 열광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대중음악과 스타에 심취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연장에서의 태도나 행동에 관해 다음의 6개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연장에 갔을 때 조용히 관람한다.', '박수를 쳐서 흥을 돋군다.', '노래를 따라한다.', '소리를 지른다.', '미리 준비해 간 선전물(프랭카드)을 흔든다.', '흥분하여 울거나 물건을 던진다.'로서 이 중에서 '소리를 지른다.', '미리 준비해 간 선전물(프랭카드)을 흔든다.', '흥분하여 울거나 물건을 던진다.'를 모두 묶어 '열광적 반응'으로 규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주 그렇다'~'전혀 아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중심성척도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 (1989)의 '상상속의 청중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를 국내연구에서 번역하여 연구(김인경·장근영, 1992; 장근영·윤진, 1992)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상관계적 생각, 대인관계적 환상, 자아에 대한 이상적 상 등으로 구성된 41 문항이다. 응답은 '전혀 없다(1점)'~'자주 있다(4점)'까지 4점 척도이며, 높은 총점은 상상 속의 청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였다.

자기상 검사

심리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용 자기상 검사(SIQY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ce,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를 사용하였는데 이미 국내(곽금주, 김근영, 1997; 곽금주, 이춘재, 1994)에서 연구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8개의 하위척도로서 응답은 '나와 전혀 다르다(1점)'~'나와 매우 비슷하다'(6점)까지 6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자기상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신체상(body image)이 .68, 정서상태(emotional tone) .88, 충동통제(impulse control) .59, 정신병리(psychopathology) .84,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86,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78, 대처능력(mastery & coping) .77, 적응능력(superior adjustment) .75였다.

정신건강 척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이 정신건강 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김광일 등(1983)에 의해 표준화된 5점 척도이며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신체화(somatization)가 .90,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86, 대인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84, 우울(depression) .92, 불안(anxiety) .88, 증오 및 공격성(hostility) .80, 정신증(psychoticism) .86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는 청소년의 자기-가치나 자기-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선(1993)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 4점 척도상에 평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다.

자기가치감 척도

Harter(1982) 청소년용 자기 자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박금주·김근영, 1997; Harter, 1989)의 하위 9개 영역 중 하나인 자기가치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한 개인이 현재의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지 자신 전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결 과

각 영역에서 일반집단, 심취집단의 두 집단과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의 두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다음, 사후검증을 하여 그 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1. 열광적 반응에 있어 연령과 집단간 차이

대중음악과 스타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 심취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F_{1,276} = 128.93, p < .001$),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F_{1,276} = 6.54, p < .001$), 특히 일반 초기청소년 집단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2 참조).

표 2. 열광적 반응에 있어 연령 및 집단에 따른 평균(표준편차)

연 령	집 단		전 체
	일반집단	심취집단	
초기청소년	1.89(1.25)	3.51(.83)	2.74(1.04)
후기청소년	2.23(.97)	3.26(.78)	2.71(.88)
전 체	2.08(1.11)	3.39(.81)	2.73(1.17)

2. 각 심리적 영역에서 연령과 집단에 따른 차이

1)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의 하위 구인인 '상상속의 청

중영역에서는 연령과 집단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다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심리·사회적 발달

표 3에 심리사회적 발달의 하위영역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신체상 영역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에 있어 연령과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_{1,276} = 4.93, p < .05$). 초기 청소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후기 청소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일반 초기 청소년집단이 가장 낮은 신체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외로움, 불안을 포함한 정서상태에 있어서 연령($F_{1,276} = 15.72, p < .0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는데($F_{1,276} = 6.31, p < .05$), 일반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심취집단보다 더 뚜렷하였다. 과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알아보는 정신병리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여($F_{1,276} = 5.97, p < .05$), 청소년 초기보다 청소년 후기에 정신병리적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기상 및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에 있어 연령 및 집단에 따른 평균(표준편차)

구분	하위영역	일반집단		심취집단	
		초기청소년	후기청소년	초기청소년	후기청소년
자기상	신 체 상	2.67(.71)	3.00(.79)	2.84(.85)	2.78(.54)
	정서상태	1.87(1.02)	2.65(1.02)	2.11(1.12)	2.28(.80)
	충동통제	2.47(.66)	2.60(.86)	2.79(.11)	2.64(.07)
	정신병리	2.12(.91)	2.57(.85)	2.22(1.12)	2.31(.80)
	가족관계	1.57(.80)	1.94(.91)	2.02(1.00)	2.11(.62)
	친구관계	1.63(.66)	2.09(.90)	1.95(1.04)	1.83(.73)
	대처능력	2.05(.84)	2.39(1.00)	2.27(.91)	2.25(.58)
	적응능력	2.47(.80)	2.39(.87)	2.56(.88)	2.34(.68)
	자기상 총점	3.94(.58)	3.58(.71)	3.69(.82)	3.70(.45)
정신건강	신 체 화	2.12(.84)	2.55(.78)	2.08(.86)	2.30(.61)
	강 박 증	2.60(.82)	3.07(.63)	2.42(.90)	2.56(.67)
	대인민감성	2.37(.75)	2.80(.74)	2.28(.87)	2.37(.69)
	우 울	2.24(.83)	2.95(.86)	2.19(.96)	2.34(.74)
	불 안	2.07(.80)	2.55(.81)	2.05(.81)	2.26(.64)
	적 의 성	2.20(.82)	2.57(.90)	2.27(.98)	2.31(.75)
	정 신 증	1.94(.70)	2.37(.69)	1.89(.78)	2.04(.66)
	정신건강 총점	2.22(.71)	2.70(.67)	2.16(.81)	2.31(.59)

* *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각기 의미함

* 진한 부분은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4. 자아존중감 및 자기가치감에 있어 연령 및 집단에 따른 평균(표준편차)

구 분	일반집단		심취집단	
	초기청소년	후기청소년	초기청소년	후기청소년
자아존중감	3.26(.75)	2.95(1.21)	3.11(.77)	3.22(.55)
자기가치감	1.50(.84)	.68(1.02)	1.13(.81)	1.05(.87)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알아본 결과 집단($F_{1,276} = 8.00, p < .01$)과 연령($F_{1,276} = 5.21,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심취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집단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_{2,276} = 1.45, n.s.$), 연령과 집단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였다($F_{1,276} = 7.90, p < .01$).

청소년기 초기에는 일반집단에 비해서 심취집단의 경우 친구관계가 긍정적이었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일반집단에 비해 심취집단의 친구관계가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외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 능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 하위척도 모두를 합한 자기상 총점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효과는 유의미하여($F_{1,276} = 4.88, p < .05$) 초기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연령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는데($F_{1,276} = 5.47, p < .05$), 심취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취 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라 자기상 총점수가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라 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화 영역에서 연령별 주효과가 유의미하여($F_{1,276} = 12.26, p < .01$),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이 더 신체화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갈수록 신체적 기능 이상에 대한 증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박증 영역에서 연령($F_{1,276} = 11.42, p < .01$)과 집단($F_{1,276} = 16.95, p <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이 더 강박적 성향이 높았고, 또한 심취집단보다 일반집단이 더 강박적이었다.

대인민감성 영역에서도 연령($F_{1,276} = 8.17, p < .01$)과 집단($F_{1,276} = 9.49, p < .01$)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후기 청소년들이 초기 청소년들보다 대인민감성이 더 높았고, 일반집단이 심취집단보다 더 높았다.

우울성향에 있어서 연령($F_{1,276} = 17.78, p < .001$)과 집단($F_{1,276} = 13.45, p < .0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이 더 우울성향이 높았고, 일반집단이 심취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과 집단간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_{1,276} = 7.58,$

표 5. 각 심리적 요인간의 단순상관

	1	2	3	4	5	6	7
1. 연령	--						
2. 자기상총점	-.18**	--					
3. 정신건강총점	.31***	-.44***	--				
4. 자아중심성	-.02	.17**	.22***	--			
5. 자아존중감	-.09	.55***	-.20***	.34***	--		
6. 자기가치감	-.24***	.40***	-.23***	.25***	.52***	--	
7. 열광적 반응	.03	-.08	.02	.20***	.03	.05	--

* $p < .05$ ** $p < .01$ *** $p < .001$

$p < .01$), 심취집단에 비해서 일반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성향에 있어서 연령($F_{1,276} = 14.34, p < .001$)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여,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이 불안성향이 더 높았다. 또한 집단($F_{1,276} = 4.05, p < .05$)에 따른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일반집단이 심취집단보다 더 불안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연령과 집단간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F_{1,276} = 14.34, p < .001$)과 집단($F_{1,276} = 4.05, p < .05$)에 따른 정신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초기 청소년보다 후기 청소년들이 더 정신분열 성향이 높았으며, 또한 일반집단도 심취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연령과 집단간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건강을 측정한 하위척도들의 개인별 총점에 있어서, 연령($F_{1,276} = 14.71, p < .001$)과 집단($F_{1,276} = 9.16, p < .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초기 청

소년들이 후기 청소년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심취집단보다 일반집단이 더 부정적이었다. 또한 연령과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미하였고($F_{1,276} = 3.96, p < .05$), 특히 심취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과 자기가치감

표 4에서 보듯이 자아존중감은 연령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F_{1,276} = 3.96, p < .05$), 각 집단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심취집단보다 일반집단에서 더 컸다.

자기가치감 영역에서 연령의 주효과($F_{1,276} = 14.24, p < .01$)와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F_{1,276} = 11.50, p < .001$). 초기 청소년 집단이 후기 청소년 집단보다 더 자기 가치감이 높았으며, 일반집단에서는 초기 청소년 집단이 후기 청소년 집단보다 높은 자기

가치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비해 심취 집단의 경우는 초기 청소년 집단보다 후기 청소년 집단의 자기가치감이 더 높았다.

3. 각 심리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전체집단에서 각 변인들의 자기상 총점수, 정신건강 총점수, 자아중심성, 자기존중감, 자기가치감과 공연장에서의 열광적 반응 간의 상관관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4. 열광적 반응을 설명해 주는 심리적 요인들

표 6은 열광적 반응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자기상, 정신건강, 자아중심성, 자기존중감과 자기 가치감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준화회귀계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들만을 회귀식에 들어가도록 한 결과, 자아중심성과 자기상이 응답자들의 열광적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자기상과 높은 자아중심성을 지닐수록 공연장에서 더 열광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중음악에 심취한 오빠 부

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예인 클럽에 가입하거나 공연장을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을 표집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일반 청소년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인 자아중심성에 있어서 심취집단과 일반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아중심성은 청소년들이 대중음악과 스타에 대해 열광하는 반응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이었다. 자아중심적인 청소년일수록 대중음악에 심취하여 극성 팬이 되거나 공연장에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거나 소리지르고 흥분해서 울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장에서의 이와같은 열광적인 반응에 그 다음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은 자기상 총점수였다.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대중스타에 심취하고 공연장에서 더 열광하는 반응을 보인다.

자기상의 하위영역에서 심취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연령과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신체상, 정서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영역이었다. 신체상에 있어서 어린 청소년의 경우 일반집단에 비해 심취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나 나이 든 청소년에서는 심취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더 낮은 신체상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 청소년

표 6. 열광적 반응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²	R ² 증가분	회귀식의 F치	최종회귀식의 β
1	자아중심성	.04		11.37	.22
2	자기상	.05	.01	7.79	-.12

년의 경우 초기에는 부정적인 신체상(너무 뚱뚱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에서 후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심취집단의 경우 어린 시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며, 후기로 가더라도 그 점수가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찍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외모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오빠부대 청소년이 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정서상태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지니는데 그 차이가 일반집단에서 더욱 컸다. 일반집단에 비해 심취집단에서는 어린 연령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이가 더 들어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 연령에서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것은 이 시기의 불안이나 우울에 다소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집단이 심취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심취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나, 후기에는 일반청소년이 심취한 청소년보다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오빠부대란 중학생에게 더 퍼져 있는 현상으로 이시기 또래에 대한 동조 현상의 하나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빠부대 청소년이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총점수에서 연령과 집단별 차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들이 후기청소년

년에 비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연령으로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심취집단의 경우 일반집단보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반집단보다 더 적었다. 정신건강 하위영역을 보면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정신증의 영역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심취집단 청소년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대중음악에 심취하고, 열광적인 팬클럽 활동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완충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심취집단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일반집단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아지나, 심취집단에서는 낮아지지 않았다. 자기가치감에 있어서도 일반집단의 경우는 초기에 비해 후기 청소년들이 더 낮은 자기가치감을 지니고 있었으나, 심취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심취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자기가치감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중음악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나 정신건강적 측면에 일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한껏 소리치르고 환호하면서 묵히고 억눌렀던 감정과 신체적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 대중적 우상에 대해 열광행동을 한다는 것을(박경애, 1995) 지지해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이나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청

소년 시기의 심리적 갈등이나 억압이 대중음악이나 스타에 대한 열광이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다른 비행행동을 하는 것보다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외국연구들에서 헤비메탈과 같은 록음악이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헤비메탈이라는 음악 장르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대중음악이나 스타에 집착하는 행동은 이들의 정신건강적 측면에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상의 신체상 하위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또래인 젊은 우상에게 동류의식을 느끼고, 특히 남성이란 점과 그들이 어떤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일반집단의 어린 청소년들보다 심취집단 청소년으로 하여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게 한다. 열광적으로 자신의 흥분과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일반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신체상과 정서상태를 보인다. 또한 자신들이 속한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으로 우상에 열광하고 몰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파부대 현상은 나이 어린 중학생들에게 더 퍼져 있는 현상이지만, 고교때도 대중음악에 심취하여 여전히 오파부대로 남아있게 된 청소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피한 채 우상에게 몰입한 상태이므로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자기상의 하위영역에서 초기 청소년기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취집단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

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집단 청소년들보다 더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일반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보다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오파부대라고 명명되는 대중음악에 심취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 것으로 심리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집단과 심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예를 들어,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청소년들의 주변환경에 따른 차이를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중심성,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지각을 알아보는 자기상 척도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는데, 자기상에서 긍정적이라고해서 반드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물론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으나, 이 두 척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성격유형에 있어서 오파부대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같은 성격적 특성의 차이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상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파부대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여학생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남학생들도 포함시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남학생들은 운동스타에 그리고 여학생은 대중음악 스타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왜 성별에 따라 그와 같은 다른 양상이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금주·김근영(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I) :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 10(1), 15-26.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개인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정신건강연구**, 1, 1-40.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I)-개인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정신건강연구**, 1, 41-50.
- 김인경·박금주(1997). 대중스타에 열광하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적응. **삶의 문제와 적응의 심리학**(최정훈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법문사.
- 김인경·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3-156.
- 이상선(1993).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춘재·박금주(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I) :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2), 119-135.
- 장근영·윤진(1992).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57-176.
- 조혜정(1997). 청소년 문화읽기 : 문제는 언어와 감수성이다.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5). **오빠부대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Blos(1967). *On Adolescence*. Cambridge: Univ. Press.
- Brown, J. D., & Walsh-Childers, K. (1994). Effects of Media on Personal and Public Health. In J. Bryant, & D. Zillmann(Ed.),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389-4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rke, R., & Grinder, R.(1966). Personality-oriented themes and listening patterns in teenage music and their relation to certain academic and peer variables. *School Review*, 74, 196-211.
- Christenson, P.G., & Roberts, D.F. (1990). *Popular music in early adolescence*. Washington, DC: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 Firth, S. (1992). The Industrialization of Popular Music. In J. Lull (Ed.), *Popular music and communication*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Grossberg, L. (1992). Rock and roll in search of an audience. In J. Lull(Ed.), *Popular music and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Larson, R., & Kubey, R. (1983). Television and music : Contrasting media in adolescent life. *Youth and Society*, 15, 13-31.
- Leming, J. S. (1987). Rock music and the socialization of moral values in early adolescence. *Youth and Society*, 18(4), 363-383.
- Lull, J. (1987). Listener's communicative uses of popular music. In J. Lull(Ed.), *Popular music and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Jarcho, H.D.(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Roe, K. (1984). *Youth and music in Sweden: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teenagers' media use*. (Media Panel Rep. NO. 32). Lund, Sweden: Sociologiska Institutionen.
- Roe, K. (1990). *Youth and Music in Sweden :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teenagers' media use*. Lund, Sweden: Sociologies Institutionen.
- Rosenberg, M. J.(1960). An analysis of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In M. J. Rosenberg, C. I. Hovland, W. J. McGuire, R. P. Abelson, & J. W. Brehm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components* (pp. 15-64).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 Strasburger, V. C.(1990). Television and adolescents: Sex, drugs, rock'n' roll.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 161-194.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ppa Budae"

Keumjoo Kwak

Osan College

Inkyung Kim, Jinyoung Yang

Yonsei University

Kwak, keumjoo, Kim, Inkyung and Yang, Jinyou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ppa Buda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98, 5, 1~17.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self-image of Korean adolescents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Oppa Budae". "Oppa Budae" represents a group of teenage girls who are wild with enthusiasm over their favorite stars. The subjects were 280 Korean girls(mean age: 15.41)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Oppa Budae" group and general group. The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SCL-90, the scale for egocentrism, self-esteem, self-worth were administered. As the results, "Oppa Budae" group showed more positive scores than general group in the subscales of body image, emotional tone, family relationship, emotional tone, obsessive-compulsive, depression, anxiety, psychoticism. Therefore this result implied that a mania for a music was the role of buffer in adolescence.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further.

Keywords: "Oppa Budge" · adolescent · psychological charateristics